



박태원 교수의

불교로 보는 인생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우선 거짓말을 태연하게 하는 능력부터 키워라!

“거짓말 게임”이 한국 사회를 읽는 키워드의 하나라면 지나친 자화상일까? 최근 한국 사회를 이끄는 정치, 경제적인 파문을 보노라면 저절로 이런 자화상적인 상념이 떠오른다. 우리 사회의 실세들, 권력과 재력의 강자들이 연출하는 허위와 기만의 파노라마는 흡사 거짓말 능력의 각축장인 듯 보인다. 금융과 정치와 관료가 뺏겨온 채 얽혀 한탕 하다가 불거지는 비리와 부정 그리고 거짓말의 수위는 이제 하늘을 찌를 듯하다.

어와 마음의 밀접한 관계를 통찰 하겠기 때문이다. 해탈의 궁극 조건은 결국 마음이다. 그리고 마음을 해탈시키기 위해서는 언어 습관의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신 것이다. 왜 그럴까?

현대철학 역시 언어와 사유의 ‘폐어’를 수 없는 관계를 주목한다. 언어는 단지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만이 아니라, 생각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인간의 사유는 언어적 사유이며, 세상에 대한 해석이나 경험 역시 ‘언어’에 의해 짝히 나온다. 인간이 언어를 습득하고 사용하는 것은 바로 삶의 내용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삶의 내용을 구성하는 가치관, 인생관은 압도적으로 언어의 영향을 받는다.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해탈은 궁극적으로 ‘사실대로 보는 지혜(如實智)’에 의해 완성된다. 언제부터인지 작용하고 있는 ‘사물에 대한 인초적 무지(無明)’를 바로 잡을 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실현된다. 이 지혜를 개발하려면 우선 사물의 진실을 직면하려는 정진적 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사실을 회피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거짓말 능력의 각축장

웃 로비 사건의 주역들이 청문회장에서 연출하던 그 진지한 거짓말 잔치들은 배역을 바꾸며 끊임없이 이어진다. 그래서 영민한 이들은 곧 교훈을 터득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특별히 잘한다.’

진실대로 말하고 사실대로 보는 지혜

사실을 직면하고 그대로 파악하려는 정진적 경향이 확고해져야 한다.

언어는 사유의 습벽과 내용을 구성한다고 했다. 거짓말이 무엇인가?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은폐, 회피하는 행위. 그러기에 거짓말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정진적 태도와 성향과 능력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 반면 ‘진실대로 말하기’는 사실을 그대로 직면하고 파악하려는 마음의 능력을 증장시킨다.

부처님이 해탈의 통로로 ‘바른 말 수행’을 힘주어 마련하고 계신 뜻이 여기에 있다. 거짓말은 관계의 그물(사회)을 뜯어먹는 불신의 기반인 동시에, 해탈이라는 생명 최고의 과업을 가로막는 강력한 마장(魔障)이다. 감쪽같이 속단하고 회심의 미소를 짓는 그 순간, 생명 성숙의 토대는 맥없이 허물어지고 있다.

부처님이 ‘올바른 언어 수행’을 해탈 수행법으로 제시한 것은 언

염불공덕 무위처에 이르고

참불자의 길

염불수행 ① - 경전에 나타난 염불

부처님을 염(念)하는 염불은 불교수행 가운데 하나로 초기불교 이래 수많은 불교도들에 의해 중시되어 왔다.

오늘날 사찰에서 행해지는 여러 불교의식은 염불이 없이는 어법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또 불자들의 70% 이상이 염불신앙에 기초한 신행을 하고 있는 등 불교에서 염불이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다.

이같은 불교신행과 수행의 중심에 있는

부처님 당시 제자들 교단 의식때 감흥어

염불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염불의 최초 모습은 부처님 당시 제자들이 교단에 입단하면서 외우는 감흥어(udana)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부처님의 법을 듣거나 혹은 부처님을 친견한 후 불교에 귀의하는 입단의식에서 ‘나 무불(南無佛)’을 세 번 불렀는데, 이것이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으로 발전해 칭명사상(稱名思想)으로 형성되었다. 이를

하나의 수행법으로 채택한 것이 염불수행이다.

칭명사상은 염불을 하면 공덕이 생긴다는 데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부처님이 설한 법과 모든 부처님이 찬탄한 명호를 듣는 사람은 똑같은 득과가 생긴다는 대승불교의 문명사상(聞名思想)으로 이어졌다. 태일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은 “특히 <관무량수경>의 ‘칭나무아미타불(稱南無阿彌他佛)’은 염(念)→칭명(稱念)→칭명(稱名)으로 발전되는 대전환기를 마련해 후대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염불의 원류와 전개사>에서 밝히고 있다.

원시경전 가운데 염불을 수행방법으로 언급한 예를 찾아보면 <증일아함경>에 “한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시었다. 이때 세존은 모든 비구들에게 이르시기를 ‘마땅히 한 법을 수행하고, 마땅히 한 법을 널리 펴라. 한 법을 수행하면 문득 명예가 있게 되고, 큰 과보를 이루며 모든 선이 널리 이르게 되고, 감로의 맛을 얻어 무위처(無爲處)에 이르며 열반에 이른다. 어떤 것을 한 법이라고 하는가? 이른바 염불이다’라고 하셨다.” 부처님은 모든 비구들에게 수행의 한 법을



○사찰에서 행해지는 여러 불교의식은 염불이 없이는 어법하게 이뤄질 수 없다. 해인사 정대불사에서 석가모니불을 염하는 불자들.

염불(buddhasmṛti)이라고 알려주면서, 염불하는 공덕에 의해 무위처에 이르고, 열반에 들어 갈 수가 있다며 염불수행의 중

믿음-원력-실천

일치시켜야 염불삼매

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등 정토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염불수행은 극락왕생(極樂往生)에 목적을 두고 있다. 아미타불과 극락정토의 여러 가지 공덕장엄을 찬탄하는 법문을 듣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왕생할 것을 권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모든 중생들은 그 명호를 듣고 기쁜

마음으로 신심을 내어 한 생각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저 국토에 태어나기를 원하면 곧 왕생하여 불보전의 자리에 머문다.” <무량수경>

부처님은 <관무량수경>에서 “극락왕생을 발원한 염불행자는 반드시 지성심(至誠心)·심심(深心)·회향발원심(廻向發願心)의 삼심(三心)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한다. 일체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아미타불의 서원을 깊이 믿고, 염불행을 통해 무량광명찬 불빛의 세계로 나아가 것을 발원하라는 뜻이다.

따라서 염불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다른 수행법과 마찬가지로 지극한 마음으로 신구의(身口意) 삼업을 청정히 하고, 믿음(信)과 원력(願)과 실천(行)을 일치시켜야만 염불삼매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다. 이은자 기자

(ejelee@buddhapia.com)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중국의 선종(禪宗)은 복위시대 중국의 양나라에 있는 인도승인 보리달마(菩提達摩(?~528 또는 ?~536)를 초조(初祖)로 하고, 2조 혜가(慧可), 3조 승찬(僧粲), 4조 도신(道信:580~651), 5조 홍인(弘忍:601~674), 6조 혜능(慧能:638~713)의 순서로 그 선법(禪法)을 전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육조인 혜능, 즉 당대(唐代:618~907) 초기에 와서야 선종을 불교의 일파로서 간주하기 시작했으며, 그 중에서 한파의 육조(五代)를 선종의 가장 중요한 문인으로 여기게 되었다. 선종은 혜능과 그의 제자들에게 의해 점점 융성해져서, 당말(唐末) 오대(五代) 및 북송(北宋)시기가 그 전성기가 되었으며, 원명(元明)이후의 선종은 차츰 불교의 다른 종파와 결합이 되어 그 나름의 특색을 잃어버린 것으로 간주된다.

선종의 특색이란, 소위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발전(教外別傳)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종래의 전통적인 귀족 사회의 대외(對外) 부분을 벗어난 인간의 자연 그대로의 존재를 강조하는 인간관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선종은 불립문자를 표방하였으나, 장기간의 발전과정 중에 의외로 적지 않은 문헌이 후세에 전해지게 됐다. 선종의 문헌, 그 중에서 대화(對話) 부분은 그 당시의 입말(口語)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중국어학 연구자들의 새로운 관심 영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여기서 우선 남송(南宋) 시기 운문종(雲門宗) 스님인 정수(正受:1146~1208)가 편찬한 <가태보통록(嘉泰普燈錄, 1202년 편

“선가의 어록은 가장 오래된 백화문”

33선어록의 연구(1)



송인성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선어록연구

찬) 권25에 수록된 본각법진일선사(本覺法眞一禪師)의 말을 보기도 한다. “선가(禪家)의 언어는 걸만 화려한 것은 숭상하지 않는다. 오직 순박하고 진실하여야 할 것이지, 모름지기 시골구석의 백성이나 아이들의 말과 비슷해 아만 비로소 알맞을 것이다. 그것(선가의 언어)이 또한 어찌 문자의 구속도 받지 않는다. 지금 사람들은 선가의 언어가 비속하다고 자주 비웃는데, 소위 ‘비웃음’을 받지 않는다면 정도(正道)가 아닐 것이다.”

이로 보면 당시 사람들이 이미 선종 언어의 순박함 내지는 비속함이라는 특색을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바로 이러한 언어의 특색 때

문에 선종문헌, 그 중에서도 선어록이 중국어 문법 연구의 매우 중요한 대상으로 부각되었다. 중국 언어학자인 고명개(高明凱:1911~1965)가 1948년에 발표한 논문 ‘당대 선종 어록에 나타난 어법 성분(唐代禪宗語錄所見의語法成分)’에는 아래와 같은 지적이 있다.

“가장 오래된 백화문은 후세에 전해져 내려온 통속문이 아니라, 선가의 어록이다... 아주 오래 전에 선종들은 스승의 설법을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러한 기록들은 대부분이 백화문으로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어록’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당송 시기의 입말은 당송명칭(唐宋明清) 시기 근대중국어(近

代 漢語)의 전반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중국어학 연구자에게 매우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부각되어 관련 논저가 간행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선종문헌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그 중요한 이유는 선가의

독특한 사고 및 표현방식 이외에, 현재에는 사용되지 않는 당시의 특이한 입말(선가에서만 사용되는 특이한 입말 포함) 때문에 관련 문헌의 해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에서 간행된 <한어대사건(漢語大詞典)>(1987~1994: 부록, 색인 포함하여 모두 13권입)은 표제어가 37만여 개나 되고, 당송명칭(唐宋明清) 시기의 어휘까지 실고 있지만, 역시 선종문헌에 나타난 입말은 거의 수록하지 않아, 앞으로 이 방면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절실하다고 하겠다.

LIHIS 양말이 여러분앞에 인사드립니다. LIHIS 건강 지압 양말, LIHIS 건강 숲 양말. 건강지압양말, 건강숲양말. 상담문의: 제조원 (주) 화동 섬유

학생시험 지도 대학 秘法 수능시험. 학생 당사자보다 부모 형제 친지분들이 애가 더 탐니다. 30년간 팔공산 토굴에서 수행정진하면서, 터득한 비법. 1999년도 수능시험 100% 시험 성적 향상!!!

레이키(Reiki)법이 왜 화제인가? 드디어 『박희준식』 레이키(Reiki)법을 확립해 국내외에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키(Reiki)는 우주 창조와 만물의 조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근원적인 사람의 생명 에너지이며, 이것을 질병의 치료와 생활의 다방면에 이용하는 법이 레이키법입니다.

신비의 기 파스 요법. 기가 통하면 온몸이 편해집니다!! 기 파스 요법. 기가 막힌 곳에 붙여 주면 시원해지고 통증이 사라집니다. 기의 신비감 파라미드, 기의 신비감 파라미드, 기의 신비감 파라미드.